

오스카까지 접수...케데헌 'K컬처' 새 역사 썼다

골든글로브·그래미 어워즈 이어 석권 애니상·주제가상 '2관왕' 존재감 각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2관왕에 오르며 시상식의 또 하나의 주인공이 됐다.

올해 아카데미 수상 후보 가운데 한국 작품은 없었지만, 한국적 요소를 담은 '케데헌'의 수상. 전통무용에 판소리가 어우러진 주제곡 '골든' 무대는 K-컬처의 존재감을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각인 시켰다. 골든 글로브, 그래미에 이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요 상을 석권하면서 K컬처의 저력을 글로벌 무대에 보여줬다는 평이다. 세계적 권위의 영화 시상

식에서 디즈니의 '주토피아 2', 픽사 스튜디오의 '엘리오' 등 경쟁한 후보를 제치고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케데헌'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등 2개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시상 무대에 오른 매기 강 감독은 "저와 닮은 분들'이 주인공인 이번 영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미안하다"며 "다음 세대는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상을 한국과 전 세계 한국인에게 바친다"라고 수상의 기쁨을 자신의 뿌리가 깊은 한국에 돌렸다.

이날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작품상과 감독상(폴 토마스 앤더슨), 남우조연상(손 쉐) 등 6개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역대 최다인 1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던 '씨너스: 죄인들'은 남우주연상(마이클 B. 조던), 각본상, 음악상, 촬영상 등을 4개 부문을 수상했다.이란 전쟁 중에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발언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편, '케데헌'은 지난해 6월 공개된 이후 글로벌 누적 시청 5억회를 넘기며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제치고 역대 넷플릭스 콘텐츠 가운데 최고 흥행을 기록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제98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케이팝 데몬 헌터스' 공연.

옌남

“신문윤리강령 준수...부서 간 상호 소통 강화를”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16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실무교육에는 이승배 사장·편집인인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이뤄졌다.

이 사장은 편집윤리강령에서 취재기자는 데스크와 의견 조율 후 기사를 송고하고, 데스크는 기사 송고 시 취재 기자 의견을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단 몇 초 만에 첫인상이 정해진다며 취재기자는 용모를 단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읽기 편한 지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취재기자와 편집기자가 취재·편집·교정 과정에 대해 수시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주주 시 준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규정된 광고 단가를 지킬 것을 피력했다.

이 사장은 실제와 다른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의 판단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16일 오후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남일보 임직원 교육, 광고 등 법·기준 준수 주문 이승배 사장 “공정정보 핵심·품격 있는 사회 조성”

를 삼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준수를 위해 관련 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리 공익광고 게재 준수와 과대광고 문구 삭제 등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정기구독자 유치

에 대해 안내했다.

이 사장은 정기구독자 관리를 위해 구독 요청 시 급금 제공 금지와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 구독료 원천 준수, 무단 투입 금지 등을 주문했다. 또 오배송을 줄이기 위해 배달 전에 다시 한 번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승배 사장은 “윤리강령은 사실의 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의 사실 확인과 출처 검증 원칙, 신본 사칭 등 비윤리적 취재 방식 금지, 재난·범죄 보도에서의 인간 존엄성 보호 등을 주요 기준으로 담고 있다”며 “언론은 품격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곡성군은 최근 곡성을 시가지에서 '용기종기 마음정원 투어'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사진제공=곡성군

곡성 '용기종기 마음정원 투어' 시범운영 성공 군, 3개 생활 투어 콘텐츠 개발...“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곡성군은 최근 곡성을 시가지에서 '용기종기 마음정원 투어'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용기종기 마음정원 투어'는 소규모 생활정원과 골목 풍경을 체험하는 '마음의 정원', 지역 상권과 일터를 탐방하는 '일의 정원', 예술가와 창작 공간을 연결하는 '창작의 정원'이라는 세 가지 콘셉트를 중심으로 구성된 곡성형 로컬투어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행정안전부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그동안 섬진강기차마을에 집중됐던 관광객 흐름을 곡성을 시가지 상권과 생활권으로 확장하기 위한 도심형 로컬투어 모델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어에는 군 관계자를 비롯해 강진권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장, 김원희 토

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권유구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등 로컬브랜딩과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코스를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범투어는 곡성을 낙동원으로 증안로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낭만기차(달풀)에서 투어 취지와 사업 방향을 소개한 뒤, 화정천과 감성종정길을 따라 도심 산책 코스를 걸으며 곡성읍의 생활 풍경과 골목 자원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곡성을 도심의 생활 공간과 골목 자원이 관광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코스를 보완하고 곡성라운지를 거점으로 한 로컬투어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보성군조합운영협의회와 보성불교사암연합회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 300만원을 보성군장학재단에 기탁했다.

보성 조합운영협의회·불교사암연합회

보성군장학재단에 1300만원 기탁...인재 육성 동참

보성불교사암연합회와 보성군조합운영협의회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 1000만원을 보성군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 사회의 종교계와 금융·농업계가 손을 맞잡고 보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금은 지역 인재들의 꿈을 뒷받침하는 장학 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보성군조합운영협의회는 보성·별교·북부·독광·회천농협 등 보성 5개 농협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농업 발전과 인재 육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보성불교사암연합회는 보성 8개 전통 사찰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0만원을 기탁하며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보성군장학재단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해마다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는 불교사암연합회와 조합운영협의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보성의 희망인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투명하고 가치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장학재단은 2026년 3월 12일 기준 총 201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며 탄탄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재단은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교육 전후 도시 보성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재단은 현재 '2026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선발은 성적 우수, 희망 드림, 특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학생들을 발굴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와 (사)농가주부모임전남도연합회는 16일 강진군 일원에서 '영농후 환경애'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진행했다.

전남농협-농가주부모임,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강진서 '영농후 환경애 캠페인'...깨끗한 농촌 만들기 실천

농협 전남본부와 (사)농가주부모임은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농촌 환경정화 활동이다. 영농 후 농경지와 마을 주변에 방치되기 쉬운 폐비닐과 농자재 등을 수거해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 소각 등으로 인한 산발 위험을 줄이는 등 농촌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현장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에 앞장서 주는 것이야말로 농심전신을 실천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와 (사)농가주부모임은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농촌 환경정화 활동이다. 영농 후 농경지와 마을 주변에 방치되기 쉬운 폐비닐과 농자재 등을 수거해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 소각 등으로 인한 산발 위험을 줄이는 등 농촌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현장에서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에 앞장서 주는 것이야말로 농심전신을 실천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환경공단, 광주천 수목 피해 예방 박차

전남대 산림자원학과 협약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병수)은 16일 전남대학교와 광주천 수목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천 일대 수목의 건강 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재해 및 병해충 등에 의한 수목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 동안 광주천변에 미국흰불나방이 집단 발생하여 수목의 잎을 갉아 먹는 등 생육 저해하고 시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광주천 수목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연구, 수목 생육 환경 개선, 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 교류 및 정보 공유를 통하여 광주천 수목의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전남대학교의 수목 및 병해충의 전문 연구기관의 지식과 광주환경공단의 현장 관리 및 방제 경험이 결합될 경우, 체계적



이고 효과적인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광주천 수목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녹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산학 협력을 통해 수목 관리와 병해충 예방 분야의 연구 성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